

10년간 김대중 전 대통령 어록 새긴 대전 원로 서각가 전안원씨

“DJ 말씀 목판에 새기며 인생 지표 삼아 왔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목판에 새기며 인생의 지표로 삼아왔었는데...”

19일 대전의 원로 서각가(書刻家) 전안원(67·대전시 유성구 송강동)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평생을 삶의 지표로 삼아온 거목이 쓰러져 너무도 안타깝다”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씨는 “김 전대통령의 말은 한 마디 한 마디가 너무나 훌륭하고, 남길 가치가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그 분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씨에게 있어 김 전대통령의 서거는 인생의 나침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충격이다. 전씨는 지난 1985년부터 10년간 김 전대통령의 어록을 100개의 대형 서각목판으로 제작하며 각별한 ‘DJ 사랑’을 실천해왔기 때문이다. 전씨의 이같은 사연은 지난 2005년 10월 22일 본보의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특히 대전 ‘토박이’인 전씨는 김 전대통령과 어떠한 개인적·정치적 인연이 없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전씨는 “우연히 ‘김대중 어록’을 읽어본 뒤 목판 작업을 결심하게 됐다”며 “존경하는 분의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을 100개의 목판에 새긴 서각가 전안원씨가 19일 자신의 작업실에 보관중인 목판 작품들을 바라보며 고인의 서거를 애도하고 있다.

씀을 새긴다는 사실 만으로 10년간의 작업 시간이 너무도 즐거웠다”고 회상했다.

전씨가 제작한 목판에는 김 전대통령이 직접

쓴 글과 연설내용, ‘옥중서신’ 등이 빼곡히 적혀 있다. 가로 40~60cm, 세로 120cm, 두께 3cm의 목판은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릴

정도로 힘든 작업이다.

전씨는 “총 100점의 작품 중 김대중도서관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각각 3점을 기증했으며, 현재 80여점을 보관하고 있다”며 “또 제작 후 10여점 이상은 김 전대통령의 지인들의 손에 건네졌는데, 아직까지 작품에 대한 평가가 전무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전씨는 또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목판 전시회를 갖고 싶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존 가치가 있는 귀중한 작품들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한탄했다.

전씨는 “그동안의 작업 성과가 알려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목판 작업에 대한 후회를 해본 적은 없다”며 “작품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서 김 전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후 어록들도만 들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광소 전씨의 남다른 ‘DJ 사랑’을 묵묵히 지켜본 심재후(59·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기술원)씨는 “김 전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목판들이 영원히 사장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늦은 감은 있지만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목판이 대중에 공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화순 이동센터 연합회 금호리조트 체험학습



화순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회장 정중은)는 최근 센터 아동 370여명을 대상으로 화순 금호리조트 아쿠아나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화순군 제공>

광주교총 ‘2009년도 장학금 전달식’



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광주교총)는 19일 광주교총 사무국에서 ‘2009 한국교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송길학 광주교총 회장은 광주교대 박지영(여·3년·오른쪽)씨와 조선대 공과대학 송원(4년)씨에게 장학증서와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은 봉사단, 노인에 무료급식 봉사활동



‘광주은행 지역사회봉사단’ 20여명은 19일 광주시 남구 서동 광주공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현장에는 원호사 주지인 현지스님과 여성신도회 회원들도 참석해 음식제공과 배식, 설거지를 했다. <광주은행 제공>

호남대-빛고을노인타운 교류 협약식



호남대학교(총장 장병원)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원장 나무석)이 19일 빛고을노인복지재단 회의실에서 노인복지 발전과 실천을 위한 교류협약식을 가졌다.

“DJ·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애도
광주 시민들의 정서에 깊은 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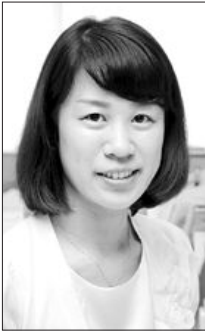
광주시 파견 근무 중국 공무원 조 방 씨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유독 슬퍼하고 애도하는 광주 시민들의 정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광주시청 국제협력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 방(여·29·曹芳)씨는 지난 3개월 동안 광주에 대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중국 엔타이시 공무원인 조씨는 지난 2006년 광주시와 엔타이시 간 우호 협력의향서 교환에 따라 오는 10월14일까지 근무한다.

조씨는 중국 길림대학교 외국어대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복수 전공하는 등 다국어에 구사하는 공무원이다. 조씨가 외국어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유사한 문화를 가진 아시아권 국가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나름의 목표 때문이었다고 한다.

유창한 우리말을 구사하는 그는



무 기간 동안 광주에 대한 ‘공부’를 많이해 광주의 문화를 중국에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광주와 한국을 깊이 알기 위해 매번 주말 여행에 나선다. 광주 시청에서 운영하는 씨티 투어버스를 타고 광주 곳곳을 둘러보는 것은 물론 전국 유명 관광지를 찾는게 주말 일과.

광주에 오기 전 엔타이시 투자촉진국 한국국 담당이었던 조씨는 “한

국은 물론 양 도시간 투자교류가 활성화돼 한국과 중국, 광주와 엔타이시가 함께 발전했으면 한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현재 그는 광주시 도시마케팅 본부에서 중국어 홈페이지 구축, 대 중국 투자유치 홍보관플릿제작 작업, 번역 등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오는 2011년 하계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하는 중국 선전의 준비상황에 대한 자료 조사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며 “광주시의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개회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근무를 마치면 중국에 돌아가는 그는 “광주에 머무는 동안 광주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광주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하고 싶다”며 “광주와 엔타이시의 우호교류협력 관계가 지속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여성신지식인회장에 김영숙 대표

진도군 지산면에서 진도전통식품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숙 대표(63)가 전남여성신지식인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1995년 진도전통식품을 설립, 울금편장과 고추장 등 장류와 한과·떡을 미국과 캐나다에 6만5천달러 상당을 수출해온 김 회장은 전남여성신지식인회를 1년 동안 이끌게 된다.

김 회장은 전국 쌀요리대회 대상,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명인부 대상, 세계관광음식박람회 전라도 향토음식대상 등 진도 전통음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었다. 특히 진도군에서 생산한 울금·



음식 전문가로 호평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지역인재육성에 더욱 노력해 남도음식의 본 고장으로 진도군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김일태 영암군수

대불대서 박사학위

김일태 전남 영암군수가 지난 18일 오전 대불대학교에서 명예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불대는 이날 수여식에서 “2006년 7월에 취임한 이후 영암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고 전국 유명 퍼시지로서 떠오른 ‘기찬랜드’ 조성 등 지역개발에도 힘쓴 공로를 인정해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전남매일 부사장

한상운씨 별세

한상운 전 전남매일(광주일보 전신) 부사장이 지난 18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한 부사장은 조선대 법정대를 졸업한 후 전 전남일보와 전남매일 기사를 거쳐 전남매일 편집국장장과 주필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국현, 만현, 영현 씨가 있다. 발인은 20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문의 062-231-8901.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김영진·오명주씨 장남 차욱군 최광선·이복순씨 장녀 솔이양(광주 여대 기획조정처)=22일(토) 낮 12시 메리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윤문룡·이명옥씨 장남 한술(강릉 주문초등학교)군 박정중((구)진영스튜디오)·이경희(포토매셀)씨 장녀 진영(강릉 주문초등학교)양=9월 12일(토) 오후 2시 강릉 미앤지웨딩홀 컨벤션센터 1층(아름다운홀) 피로연 일시 22일(토) 오후 12시 30분 광주 서남교회 연회장 1층(010-5619-4747)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5회 동창회(회장 이승우) 월례회=20일(목) 오후 6시30분

대인동 흥백, 062-228-3382. ▲조선대부속고등학교 제20회 동창회(회장 임성기)=20일(목) 오후 6시30분 백운동 모아산부인과 옆 대나무집, 062-671-8453.

▲북성중 제22회 동창회(회장 김경범) 월례회=21일(금) 오후 7시 운암동 오리명가, 062-525-5255.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하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062-363-2240.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062-227-8877.

모집

▲사단법인 효사랑엔 봉사단=뚝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연건강요법(오행식사, 기운동, 생활명상) 수강생 모집=9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주말반(오전 10시~12시)·야간반(오후 7시~9시) 062-230-7700~2, 010-6271-8475.

▲북구 한울복지재단 가곡 노래교실 ‘참고운소리단’ 회원 모집=55세 이상 가곡을 사랑하는 남녀, 010-9886-9775. ▲장애인 체육 동호인 모집=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방문 및 홈페이지(www.gjsad.or.kr), 전화 상담후 신청, 062-384-5544.

▲놀이패 ‘신명’ 단원 모집=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 신청자 모집=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동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문의 061-373-8865.

▲광주 아버지합창단원 모집=광주 거주 합창 좋아하시는 남성,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연습, 011-602-7354.

▲우리문화연구회 소리노리 풍물놀이 및 장구기초, 민요, 한출 회원모집=매주 월·수·금 오전 10시~11시, 화·금 오후 7시~8시30분.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주체육관 11호 장구교실, 062-371-4242.

▲사랑모아 가족복지회 회원모집=종이공예·독서모임·성교육 스타디움,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모집, 062-385-0422.

▲아카데미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자 모집=월 3~4회 노인 돌봄·미·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수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062-412-3201.

▲부동산 경·공매 동호회원(무료) 모집=기초부터 현장 답사, 물권·채권 권리분석, 부동산 미래가

치 및 환금성 분석 등, 문의 011-607-4614.

▲유급지원병(전문병) 모집=중졸 이상 학력으로 해당 특기 자격면허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 모집인원 1천명. 의무복무기간은 일반병과 동일, 연장복무기간은 하사로 영내 거주하며 이 기간중 월 120만원·지원장려수당 월 60만원 지급. 문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팀 062-230-4246~9.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봉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

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부음

▲윤유분씨 별세 이경희씨 모친상=발인 21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박구상씨 별세 남세·남집·신회씨 부친상=발인 21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고정단씨 별세 조영성·순자·순희·현민·하은씨 모친상=발인 21일(금)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3층, 062-670-4444.

